

인사말

만물이 무량한 인연 공덕의 소중함을 일깨우며, 생명의 기운으로 봄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.

불교박람회를 시작한지도 10년, 그리고 우리 종단이 박람회를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와 불교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 첫 걸음을 디딘지도 어느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.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, 내실화와 국제화라는 소중한 두 가지 의미를 실현해 온 것은 큰 의미라 할 것입니다.

한국불교는 고래부터 민족의 정치와 경제,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습니다. 한국 문화유산의 대다수인만큼 불교는 민족의 삶과 떼레야 떼 수 없는 끈끈한 관계임에 분명합니다. 특히 올해의 박람회 주제이기도 한 사찰건축은 우리 민족에게 늘 ‘마음의 쉬는 공간’이었으며,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의 삶을 더없이 가깝게 이끄는 친절한 안내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

‘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’는 한국 전통문화의 산실인 불교문화에 담긴 산업적, 문화예술적 진면목을 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. 중국, 일본, 대만, 스리랑카, 인도 등 이웃나라가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거듭난 불교박람회가 산업 활성화와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내고, 우리 문화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.

또한,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교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‘붓다아트페스티벌’이 함께하고 있기에, 오늘 이 자리가 불교계 최대 예술축제로 거듭나고 불교미술을 선도할 수 있는 향기로운 성취이기를 바랍니다. 나아가 박람회의 취지가 현대인의 삶과 함께하며, 전통문화가 생생하게 숨쉬는 산업 발전은 물론 찬란한 불교문화를 국제적으로 빛나게 하는 큰 마당이기를 기원합니다.

뜻 깊은 결실을 위해 원력을 다해오신 불교신문사와 불광출판사,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시기를 기원

합니다.

불기2560(2016)년 3월 24일
서울국제불교박람회 대회장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
자승 합장